

【6】 공들여 일궈낸 산업경제의 틀

1. 산업경제의 사적 고찰

우리나라는 옛부터 농업 국가이다. 그러므로 농업 국가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토지를 바탕으로 한 모든 제도에 대하여 상당히 복잡한 계보를 이루고 있다. 이 토지 제도 중 조선조 이후의 온양에 관계되는 부분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동납세

대동납세법은 조선조 중엽에 각 지방에서 바치던 여러 가지 명목의 공물을 쌀로서 통일하여 내게 하던 조세법이다. 역대 왕조를 통하여 토산물을 바치던 공물법이 있었으나, 이것은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여 생산되지도 않는 산물을 강제로 바치게 하거나,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갑자기 바치게 하여 그 폐단이 많았었다.

조선조에 들어와 방납제도가 성행하여 소위 경주인들은 공물을 바쳐야 할 사람이 관할관아에 직접 바치는 길을 막고 반드시 경주인의 손을 거쳐 납부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 결과 경주인들은 백성들이 실제로 바쳐야 할 액수의 몇 배를 더 징수하여 중간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조선조 중엽에 성업이 발달하여 각 지방의 산물이 서울의 육의전에서든 구할 수 있게 되자 이 경주인 제도의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다. 조선조 14대 선조 2년(1569년)에 이이가 처음으로 공물을 쌀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선조 41년(1608년)에 영의정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 선혜청을 설치하고 경기도 지역에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그 후 김육의 주장으로 인조 2년(1624년)에는 강원도에, 효종 4년(1651년)에는 충청도에, 효종 9년(1656년)에는 전라도 지역에 까지 확대 실시하게 되고, 숙종 때 비로소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 대동법의 실시로 백성의 3대 의무인 租·庸·調 가운데 조가 감해져서 백성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고, 방납제에서 오는 폐단이 아주 없어지게 되었다. 특히 調라는 공물법은 백성들의 가구수를 대상으로, 각지의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던 제도로서 경주인들의 중간 착취가 가장 심하였는데, 이 악폐가 대동법 시행으로 일소되었다.

조선조 당시 온양군의 대동납세 상황은 여지도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저치미 : 806石 12두 2작 2이

상납미 : 758石 15두 8합

온양군의 저치미와 상납미를 합하면 약 1,560여 석 정도가 되는 셈인데, 이것은 기유년(영조 5년, 1729년) 기준이다.

(2) 균세

균역법은 조선조 영조 26년(1750년)에 균역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 해에 균역청을 설치하여 종래의 균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를 어업세, 염세, 선

박세, 농작물에서의 결작의 징수 등으로 보충하였다. 본래의 뜻은 백성들의 부역의 부담을 줄이고 고르게 한다는 뜻이었으나 실상은 양민의 부담을 줄인데 불과하고, 종래 특권층의 독점이었던 어염업을 국가에 전속하게 한 점에 의의가 있었다.

이 균역법 실시에 따라 온양군에서 부담한 균역세를 기유년(영조 5년) 및 기묘년(영조 35년) 납세조로서 여지도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의 균세 수납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읍지에는 별도로 ‘균세’라는 항목이 없이 조적 항목 중에,
균역청미 : 27석 9두 5합 6작 5이 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3) 전세와 전부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조 시대의 여러 왕조에서 국가의 모든 경비를 농지를 단위로 하는 세금 징수로 충당하였다. 旱田은 ‘밭’이고 水田은 ‘논’인데, 이 ‘논밭’의 면적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세금이 田稅이고, 국민에게 부과한 각종 부역, 요역 대신에 징수하던 세금이 田賦이다. 여지도서에 의한 온양군의 田稅와 田賦의 납부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田稅

▷기유식(영조 5년, 1729년)에 의한 납부 상황은,

쌀 346석 10두 2승 4합 3작 6이
콩 157석 1승 2합 이다.

② 田賦

▷계축년의 납부 상황은,

旱田 2,048결 56부 4속 내에서 잡이로 1,459결을 제함.
계축 시기전이 588결 28부.
水田 1,342결 14부 3속 내에서 579결 44부를 제함.
계축 시기전이 762결 3속.

(4) 조적

조적은 조선조 시대에 환곡을 꾸어 주거나 또는 받아들이는 일로서, 이 행위 뒤에는 환곡 또는 환자(환상)라는 제도가 뒤따른다.

환곡법은 삼정의 하나인데, 각 고을에서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인 조세나, 꾸어준 곡식을 되돌려 받는 것을 사창에 간직하였다가, 봄철 춘궁기에 백성에게 꾸어주고,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본래 꾸어 주었던 곡식에 1할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제도 또는 그 곡식을 이른다. 환정 또는 환자(환상)라고도 하여 가장 말썽이 많고, 국민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가장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속들의 作奸이 많아서 고종 연대에 여러 차례 일어난 민란도 환곡과 관계가 많았다. 이 환곡법의 핵심이 되는 조적에 대한 상황을 여지도서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 기유식(영조 5년, 1729년)에 의함.

구분	곡식명	석	두	승	합	작	이
원회부	쌀(米)	-	1	1	4	3	4
	콩(豆)	-	4	3	-	7	2
	벼(禾)	-	8	7	-	-	9
	피	16	-	3	-	8	2
	메밀(木麥)	5	2	9	5	6	-
	봄보리	23	13	-	8	4	2
통영회부	쌀	12	-	-	4	-	-
	회외조	763	13	3	7	1	-
상진청	쌀	12	2	-	4	-	5
	전미	-	6	5	3	6	3
	조	115	10	2	4	2	-
	봄보리	776	10	8	8	3	2
균역청	쌀	27	9	6	5	6	5
비변사	쌀	30	8	6	1	7	9
감영	쌀	8	9	7	1	-	3
	벼	650	1	8	-	8	5
	봄보리	533	5	8	5	1	6
	참밀	1	4	9	1	2	6
	콩	3	8	-	8	6	5
영진곡	콩쌀	-	7	4	-	9	5
	통	1	7	4	2	4	1
	벼	32	13	5	9	4	-
	봄보리	535	-	3	9	2	1
홍산창	벼	124	4	5	9	5	1
서천창	벼	123	1	5	8	4	7
영남	벼	185	9	-	8	6	-
강도	벼	1	2	3	7	1	8
안흥	쌀	105	6	6	9	7	8
칠환	쌀	148	7	5	2	5	-
	콩	122	2	5	-	7	9
사복	콩	10	6	1	-	8	6
병영	콩	1	3	1	4	1	5
쌍수산성	쌀	108	-	-	-	-	-

(5) 진공

진공은 그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께 바치는 것으로서, 그 지방의 특산물은 그 지방의 산업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므로 조선조 시대에는 각 도의 각 군에서 그 곳의 토산물을 진공 하였는데, 진공하는 과정에서 이속등의 작폐가 심하여 많은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여지도서에는, 조흥감(조흥시자)을 진공한다고 짚막하게 기록되어 있다.

(6) 토산물

여지에 의한 당시의 토산물 개황을 보면, 온양군에는 옷(칠), 대추, 감(시), 복령이 난다고 되어 있다.

(7) 봉름

봉름은 각 관청에 딸린 공무원, 잡급직들에 대한 봉급 및 기타 고용 비용의 일체를 말한다. 옛날에는 금전으로 계산하지 않고, 논밭을 일정한 면적으로 할애하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곡식으로 충당하기도 하고, 쌀 콩 등의 일정한 양을 할당하여 이것을 현물 또는 돈으로 바꾸어 계산하기도 하였다.

▷관아녹전 : 44결 15부 1속

관아녹답 : 25결 84부 9속

공 수 전 : 7결

공 수 답 : 8결

나무값, 솟값, 반찬값 등 잡역에 쓰는 비용으로 쌀이 370석

(8) 창고

공세관창 : 아산현 서쪽 10리 지점에 있다. 온양을 비롯하여 아산, 한산, 연산, 임천, 정산, 공주, 홍주, 신창, 결성, 보령, 전의, 청양, 니산, 대흥, 석성, 해미, 태안, 천안, 비인, 은륜, 목천, 면천, 연기, 덕산, 서천, 직산, 홍산, 부여, 염포, 예산, 당진, 평택, 청주, 문의 회덕, 진령, 옥천, 회인 등 여러 고을이 세곡을 이곳에 수납하였다가 조운하여 서울로 가니 수로의 거리가 500리였다.

여지에 의하면, 옛날에는 창고가 없었는데, 가정 기미년(1559년)에 비로소 집을 지었는데, 무릇 80간이나 된다 하였다.

여도에 의하면, 수창이 읍내에 있는데 12間이라 하였고, 공세관창이 여지에는 80간이 된다고 하였는데, 여도에는 23간이라 하였다.

여도에 의하면, 온양군에 동고 10간, 서고 11간, 남고 12간의 세 군에의 창고가 있는데 대동미와 양국의 쌀을 받아들인 곳이나 봉상할 것을 보관하는 곳이라 하였다.

(9) 요역

여지도서의 기록에 의하면 온양군의 요역은, 세금을 면제한 결이 20결 65부, 쌀로 대납한 것이 16석 7두 8승, 돈으로 환산하여 낸 것이 800양 7전 4이, 선무군관 50명에게서 거두어들인 베가 대전으로 2양씩 합계가 100양이었다.

(10) 군역

여지도서에 의한 온양군의 군역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경안부 : 양군 1,106명

- ▷어영청 : 상변군 55명
- ▷금위영 : 상변군 84명
- ▷외안부 : 544명 이상 군총 1,789명

2. 농업

(1) 개요

온양의 자연조건은 농업에 매우 유리한 편이다. 먼저 지세를 살펴보면 지형의 평균 고도가 불과 100m 정도로 저평하다. 그러나 남부는 높은 산지가 발달하여 농업에 불리한 편이나 중앙은 곡고천이 관개하는 퇴적평야가 발달되어 온양 일대 최대의 곡창을 이룬다. 또한 북부 지방은 구룡성 산지 내지는 파랑상 준평원이 발달하여 전작과 과수원 및 목장 등이 발달되어 왔으나 아산호의 준공으로 양수에 의한 답작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후조건을 살펴보면, 해양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타지방에 비하여 온화다습한 편이다. 즉, 연평균 기온이 11℃ 내외로 높은 편이며 식물의 생장기간인 여름 7월 상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1개월 평균 기온은 25℃이며, 무상기일도 250일 내외 농업에 유리하며 또한 이모작도 가능하다.

연평균 강수량 1,100mm 내외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편이다. 그리고 강우 현상은 하계집중형으로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에 집중하여 벼농사에 특히 유리하다.

또한 쾌청일수가 100일 내외로 많으며, 특히 가을철의 건조는 작물의 결실과 건조에 매우 좋은 조건이 된다.

이상과 같이 온양의 지세와 기후조건은 농업에 유리하여 옛부터 농업이 잘 발달되었고 농산물도 다양하여 가뭄, 홍수 등 천연재해도 타지방에 비하여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① 경지면적

1979년도 기준 온양읍의 토지 이용현황을 보면 총면적 중 논 약 36%, 밭 약 22%, 임야 약 17%, 기타 2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단위 : m²

총계	농지				비농지	
	계	전	답	과수원		
29,888,498	17,936,916	7,197,482	10,117,604	621,830	11,951,582	

※자료 : 아산군 통계연보

② 농민 조직

정부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농민의 조직화를 서둘렀다. 온양 지방에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왔다. 새마을 운동은 부락민 총의에 의하여 지도자가 선출되고,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새마을 사업을 부락민 총의로 결의하여 실시하는 등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왔다. 즉, 새마을 지도자를

구심점으로 마을 주민이 일치단결 합심하여 마을 환경 개선은 물론 생산기반의 조성, 소득증대 등에 힘써 왔다.

한편, 새마을 청소년회(舊 4H Club),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영농회 등도 농촌 새마을 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적극 참여하여 농촌근대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환경개선사업 드리고 부락민 정신 계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새마을 영농회 운영 상황>

(1979년 12월 31일 현재)

영농회수	회원수			지도자수			작목반수	
	계	남	여	계	남	여		
45	1,988	1,988	-	45	45	-	6	

※자료 : 아산군 통계연보

③ 농업증산 시책

과학 영농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지력증진 사업, 병충해 방제, 농업용 기계기구 보급, 신품종 보급 확대 등 제반 시책의 복합적인 활성화를 위해 온양읍은 새마을 영농 교육을 농촌 청소년, 부녀자, 새마을 지도자 및 농민을 대상으로 새마을 운동의 태동 이래 각급 교육 기관에서 매년 실시하여 왔다.

한편 금비 남용으로 인하여 산성화된 농토의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퇴비 증산 등 농토배양 사업을 과감히 전개하여 왔으며, 특히 병충해 방제에 역점을 두어 농약의 원활한 수급과 방제 지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증산을 도모해 왔다.

농업용 기계기구의 보급 활용은 농촌 노동력의 부족한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근대화와 영농의 합리화에 절대적인 요소이다. 특히 동력 농기구의 공급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용 기계기구의 보급은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증하였다. 특히, 경운기, 농업용원동기, 양수기, 이앙기 등의 증가가 현저하여 농업의 기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농기계 수리기관으로 온양읍에는 대동농기계대리점, 동양 농기계대리점, 국제농기계대리점 등 3개소가 있는데 1979년 말 현재 기준으로 농업용 기계기구 보유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운정지용기구

- 동력경운기 : 237대
- 농용트랙터 : 5대

·병충해방제용기구

- 인력 살분무기 : 14대
- 인력 분무기 : 708대
- 동력 살분무기 : 160대
- 동력 분무기 : 108대

·농업용원동기

- 발동기 : 77대 (총 609마력)
- 전동기 : 22대 (총 277마력)

·농업용양수기

- 엔진 부착형 : 22대
- 경운기 탑재형 : 164대

·동력이앙기 : 2대

·동력파종기 : 2대

·제초기구

- 동력 : 2대

·수확탈곡용기구

- 동력 예취기 : 2대
- 예취 바인더 : 8대
- 반자동 동력 탈곡기 : 82개
- 자동 동력 탈곡기 : 1대
- 탈곡기 콤바인 : 1대

·건조기

- 평면식 : 1대
- 순환식 : 2대

·곡물가공기계

- 현미경 : 20대
- 정미기 : 34대
- 정맥기 : 23대
- 제분기 : 10대

·짚가공기계

- 인력 새끼틀 기계 : 37대
- 동력 새끼틀 기계 : 16대
- 인력 가마니 기계 : 15대
- 동력 가마니 기계 : 3대

·양수기계 (부대품 일체 포함)

- 펌프 23, 엔진 13, 호스 21, 후드밸브 21, 벨트 21, 밴드 22, 공구 22

※자료 : 아산군 통계연보

(2) 일반 농사

① 답작

※ 온양읍 별도의 현황 및 생산량 기록 없음. 아산군 통계연보 내용을 보면 아산군 전체 읍면의 수치로 통합 정리되어 있음.

② 전작

온양읍의 대표적인 밭 농산물로는, 실옥리 일대에서 고구마가 두드러진다. 이웃 신창면과 도고면, 선장면에서도 산출이 되고 있으나 실옥리에서 산출되는 고구마는 그 맛이 좋아서 실옥리 고구마라는 이름으로 서울에까지 알려져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산이 극히 감소되었다. 그 이유는, 특용작물 재배, 과수원의 확대 등으로 인한 상대적인 감소현상인 듯 하다.

③ 특용 작물

담배 농작 현황을 보면 황색종과 버레종이 재배되어 왔으나, 1975년경부터는 버레종만 재배되고 있다. 1979년 12월 31일 현재로 담배 경작인 수는 총 93명이며 경작 면적은 22.4ha이다.

(3) 원예농업

① 과수재배

일제시대 때부터 온양읍 일대에는 과수 재배가 상당히 발달되었다. 광복 후 특히 1960년대부터는 인근 신창면과 둔포면, 음봉면 일대와 더불어 과수 재배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② 채소재배

옛부터 수박, 참외 등의 과채류가 유명했다. 특히 수박 품종인 태화 수박은 전라남도 광주의 무등산 수박과 함께 그 명성이 높아 경향각지로 많이 반출되었다. 초사리, 신인리, 범곡리가 主産地로 지금도 참외와 같이 京仁 지방으로 많이 반출되고 있다. 그 외 배추, 무우, 파, 마늘, 골파 등의 산출도 많아서 김장철에는 서울 지방으로 많이 반출되며 양배추, 고추, 당근, 오이, 시금치, 미나리, 가지, 딸기 등의 산출도 상당하다.